

Day 1

CES 2026 기술 주도권 경쟁

AI 생태계 조성 및 선도 전략

# DAY 1 - CES 2026 기술 주도권 경쟁 → 중국 테크 기업의 글로벌 무대 본격 등장

**Las Vegas City View**

퐁텐블로  
센트럴 홀  
원호텔  
베네시안  
삼성 의도적 이탈

**C1 입구**  
2025년 삼성 위치

LG  
하이센스  
TCL

**올해 특이 사항**

- (LVCC 센트럴) TV·디스플레이 중심의 하드웨어 쇼케이스 색채는 유지
  - TCL·하이센스 등 중국 가전 대형 브랜드가 입구 전면과 핵심 구역을 차지
    - 중국 메이저 브랜드 존 성격 강화
- (원호텔) 삼성전자는 메인 전시장을 LVCC 센트럴 홀에서 원호텔로 이전
  - 프리미엄·프라이빗 쇼케이스로 전환
- (퐁텐블로) CTA의 신설 커뮤니티 CES 파운더리 및 엔비디아 주요 쇼케이스 개최
- (LVCC 웨스트) AI 인프라·모빌리티·산업 테크의 핵심
- (LVCC 노스) 전력·에너지·산업 인프라 기업 집중
- (베네시안) 글로벌 스타트업, AI·SaaS·딥테크 중심 전시

# 중국 테크 기업의 글로벌 무대 본격 등장 ➔ 中 가전, 미니에서 대형으로 전선 확대

CES 2026에서 중국 가전 브랜드의 공세는 가성비를 넘어 기술력까지 추격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전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선점하려는 ‘주도권 경쟁’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 프리미엄 TV 시장 구조의 변화: 고화질 경쟁에서 초대형 콘텐츠 경험 중심

### TCL: TV를 AI 인터페이스이자 XR 확장의 출발점으로 재정의



센트럴홀 중심부에 TCL 전시관 조성



'TCL SQD-미니LED TV'가전시

- TCL은 패널(CSOT) - 모듈 - 완제품까지 수직계열화 한 제조 플랫폼 플레이로 변모 (삼성 철수 이후 센트럴 홀 공간 점유 자체가 리더십 선언)
- 차세대 디스플레이 (e.g. Mini LED TV 'X11L', SQD-미니LED, 마이크로 RGB 계열)와 AR 글래스 '레이네오(RayNeo)' 전시  
→ 디스플레이-디바이스-XR을 연결하는 생태계 전시

### Hisense: TV는 엔터테인먼트·스포츠의 몰입 공간



하이센스의 116형 RGB 미니LED TV

- ‘더 밝은 삶을 위한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초대형 Mini LED/ULED TV와 레이저 TV 기반 홈시네마 솔루션 전시
- 독자 AI 화질 칩셋(Hi-View AI 엔진 계열)과 이를 활용한 지능형 화질·사운드 조정 기능을 차별점으로 강조
- 스마트홈 UX, 스포츠·엔터 콘텐츠 연계 시연 → TV를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닌 엔터테인먼트·스포츠·가정용 몰입 공간으로 포지셔닝

# 중국 테크 기업의 글로벌 무대 본격 등장→삼성과 LG의 대응

중국 업체들이 더 크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제조 경쟁력'을 전시하는 반면 삼성과 LG는 스펙 경쟁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하여, AI가 제시하는 새로운 표준과 기준 및 미래 일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 AI로 작동하는 미래 일상 제시

### 삼성 : 기술 역사(50년 혁신)를 통해 AI 전환의 정당성·연속성 강조



삼성관 입구: 예술 작품들로 만든 AI 갤러리가 관객들을 맞이

삼성 가전의 50년 혁신의 역사 제시  
(출처: CES 2026 티저 영상)



더퍼스트룩 2026 주제 영상  
-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Your Companion to AI Living)  
(출처: The First Look 2026 공식 티저 영상)

- CES 개막 전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 The First Look 2026 (1/4, 윈호텔) 개최
- 삼성전자가 CES를 맞아 최초로 '역사 서사'를 전면에 배치  
→ 삼성 AI 가전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며, AI는 가전의 본질적 진화 경로의 연장선 의미  
- 1980~90년대 마이크로컴퓨터 칩 에어컨, 화면 탑재 전자레인지, 음성 인식 냉장고 등  
당시에는 '과도해 보였던 혁신'이 시간이 지나 표준이 되었음을 상기
- AI를 도구(tool)가 아닌 관계적 존재(companion)로 정의, 중국 브랜드의  
'스펙·사이즈·가격' 과의 의도적 차별화

### LG : 경험을 설계하는 AI에 중점



LG전자전시관 입구



LG OLED 디스플레이

- LG의 전시 전략은 먼저 보여주고(Unveiled) → 방향을 말하고(World Premiere) → 끝까지 증명하는(Preview)'3단 구조로 설계  
- CES Unveiled (1/4, 만달레이 베이 호텔) - CES 트렌드 선점, LG 기준점 설정  
- LG World Premiere (1/5, 만달레이 베이 호텔) - AI·로봇·미래 생활 서사 및 비전 선언  
- Preview 2026 (1/4~8, 풍텐블로 호텔) - LG 단독 프라이빗 쇼룸 (기술·제품 실체 체험)
- 로봇과 AI는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체 - 로봇은 쇼가 아니라 가사 노동 해방 수단
- 차세대 디스플레이 (LG Display) - B2B·자동차·XR용 디스플레이 주도권 확보

## [CES 2026 현장] 삼성 단독관

삼성 전시관 입구는 기술을 나열하는 공간이 아니라, 삼성의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일상의 경험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서사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개별 제품이 전시가 아닌 하나의 전략적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삼성 전시관 입구: 삼성의 기술 혁신의 서사 체험



삼성전자의 CES 옥외광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월드 호텔에 노출



삼성전자의 CES 옥외광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월드 호텔에 노출

#### 올해 특이 사항

- 리조트월드 호텔(ResortWorld Las Vegas)에서 옥외광고 진행
-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옥외 광고로 존재감 과시
- 개별 제품 소개 이전에 삼성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온 기업인가를 먼저 각인
- 과거 → 현재 → 미래로 이어지는 기술 진화의 흐름
- 하드웨어 혁신 → AI 결합 → 생활 환경(Companion)으로의 확장

# [CES 2026 현장] 삼성 단독관

AI를 ‘기능’이 아닌 ‘생활 환경(Environment)’으로 재정의하며, 가전 제조사를 넘어 AI 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전시 주제 : 일상 속 AI 동반자 (AI Companion) →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AI 통합

### 홈 컴파니언 (Home Companion)



홈 컴파니언 전시존 입구 (좌)

비스포크 AI 냉장고는 카메라를 통해 재료를 식별하여 효율적인 관리 (우)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집안일 해방’을 목표로 하는 AI 가전 중심의 생활 자동화
- 가전의 가치가 ‘편의’에서 안전·시간 절감·경제적 혜택으로 확장  
→ AI 도입이 실제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는 구조 제시
  - Gemini 탑재 비스포크 냉장고: 식재료 인식 범위 확대, ‘오늘 뭐 먹지?’ · Video-to-Recipe · FoodNote 기능 제공
  - AI 로봇 청소기: Qualcomm 칩셋, RGB + 듀얼 카메라 3D 센서, 투명 액체까지 인식
  - AI 의류 관리 솔루션: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 + AI 콤보 세탁건조기, 세탁 - 건조 - 관리 통합

### 엔터테인먼트 컴파니언 (Entertainment Companion)



엔터테인먼트 컴파니언 전시존 입구 (좌)

‘2026 CES 최고 혁신상’을 받은 마이크로 RGB 130인치 제품(우)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TV를 ‘보는 기기’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전환
- TV를 엔터테인먼트 기기에서 생활 AI 허브로 재정의
- 디스플레이 경쟁을 화질이 아닌 지능·경험 경쟁으로 전환
  -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 공개 (향후 다양한 사이즈 확대)
  - 타이젠 OS 7년 업그레이드 지원

### 케어 컴파니언 (Care Companion)



케어 컴파니언 전시존 입구 (좌)

가족 건강 케어 경험 제공(우)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헬스케어 중심이 병원에서 집과 일상 데이터로 이동
- 사후 치료 중심 의료 → AI 기반 예방 의료로 전환
  - 뇌 건강 기술 최초 공개
  - 보행 속도, 손 움직임, 행동 패턴 분석  
→ 인지 저하·치매 조기 감지

# [CES 2026 현장] 젠슨황의 깜작 발표 - 엔비디아 칩 단 자율주행차 예고

NVIDIA는 ‘AI 인프라 기업’에서 ‘현실 세계 AI 운영체계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AI 경쟁의 초점이 모델 정확도에서 추론 능력과 실제 행동으로 이동하고 자율주행·로봇 등 Physical AI가 차세대 경쟁력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Jensen Huang (NVIDIA CEO)

## Physical AI 전략 제시

- AI 칩 기업을 넘어 ‘피지컬 AI(Physical AI)’ 플랫폼 리더로 도약 선언
- 피지컬 AI는 센서로 세상을 인식하고, 물리 법칙을 이해하며, 실제 공간에서 추론·판단·행동하는 AI  
→ 로봇·자율주행차가 대표 사례
- 엔비디아는 AI 칩 + AI 모델 + 플랫폼을 통합 제공하는 풀스택 전략 추진

## 자율주행: '인지 → 추론' 단계로 진화

## 현실 세계를 이해 AI 로봇

##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Vera Rubin)'

## AI 생태계의 무한 확장

## 주요 발표 내용

- 자율주행차용 AI 모델 ‘알파마요(Alphamayo)’ 플랫폼 공개
  - 단순 센서 인식이 아닌 Reasoning(추론)·설명 가능한 AI
  - 미국 출시: 엔비디아 칩 탑재 차량, 2026년 1분기 도로 주행 시작
  - 유럽 출시: 2026년 2분기 예정
  - 아시아 출시 및 운영 계획: 2026년 하반기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CLA 차량과 함께 운영

- 엔비디아 코스모스(Cosmos):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과 환경 이해 모델
- 옴니버스(Omniverse): 인공 데이터로 로봇·피지컬 AI 학습  
→ “로보틱스에서 챗GPT의 순간이 오고 있다”

- 블랙웰(Blackwell) 후속 차세대 AI 칩
- 현재 완전 양산(Full Production) 단계
- 챗봇·AI 앱 기준 최대 5배 연산 성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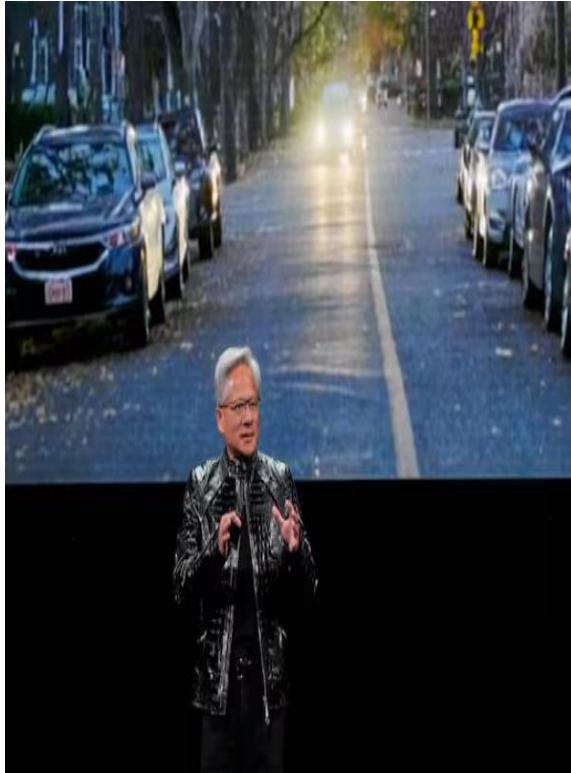
- 루빈에는 HBM4(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탑재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급을 위한 최종 테스트 단계
- AI 인프라 경쟁이 GPU → HBM → 전력·시스템으로 확장 중심을 재확인

# [CES 2026 현장] NVIDIA는 AI 칩 기업을 넘어 ‘피지컬 AI(Physical AI)’ 플랫폼 리더로 도약 선언

피지컬 AI는 센서와 물리 법칙 이해를 기반으로 현실 공간에서 판단·행동하는 기술로, 엔비디아는 AI 칩을 넘어 로봇·자율주행용 모델과 플랫폼까지 확장하며 이 분야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젠슨황은 로봇들과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걸며 연설을 시작



자율주행자동차용 AI모델 소개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로봇 업체와 피지컬 AI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조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Vera Rubin)' 소개

# [참고] 기조 연설(1/5(월)) - 리사 수 박사(Dr. Lisa Su)

리사 수의 기조연설은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에서 ‘전방위적인 컴퓨팅 인프라’와 실행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AMD**



- 주제 : AI로 인해 달라지는 세상
- 연사 : 리사 수 박사(Dr. Lisa Su) AMD CEO
- 일시 : 1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베네시안(Venetian), Palazzo Ballroom

**핵심 주제 및 내용**

- 전방위적 AI의 확산 전망
  -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엣지, PC·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컴퓨팅 레이어에서 AI가 기본 전제가 되는 시대가 도래
- AMD의 AI 풀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 CPU, GPU, 적응형 컴퓨팅(e.g. FPGA·SoC), AI 소프트웨어 스택을 하나의 통합 포트폴리오로 제시
  - AMD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서버부터 클라이언트, 임베디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제품군으로 AI 워크로드 전 주기 지원
  - (데이터센터 - AMD EPYC™ 프로세서) → (AI 가속-AMD Instinct™ GPU)  
→ (디바이스 /PC 게이밍 - Ryzen™ CPU, Radeon™ GPU)

**주요 시사점**



AI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장 큰 워크로드에서 일상의 작은 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에 일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빙산의 맨 위 조각일 뿐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주에 도전**

- 엔비디아 중심의 AI 인프라 생태계에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
- GPU 단일 축이 아니라 CPU·GPU·적응형 컴퓨팅·소프트웨어를 통합한 플랫폼 전략 → 단일 칩이 아닌 슈퍼 컴퓨터 랙 스케일 전략 (Rack-Scale) → AI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 국내 서버·PC 제조사, 클라우드·서비스 기업은 AMD 칩 활용 시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AI 인프라 옵션 제시
- AI PC·AI 서버·엣지 장비 등에서 차별화된 제품 라인업 확보 기회 제공
- 생성형 AI와 개인화 AI를 단말에서 직접 처리하는 온디바이스·엣지 AI 가속 등을 확산 시키는 인프라 제공

**AI 인프라 투자 옵션 제공**

# [참고] 기조 연설(1/6(화)) - 양 위안청(Yuanqing Yang) & 롤랜드 부수(Roland Busch)

레노버와 지멘스의 CES 2026 기조연설은 AI 경쟁의 본질이 모델이 아니라, 실행 구조와 확장 가능한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Lenovo



- 주제 : 하이브리드 AI 혁신
- 연사 : 양 위안청 (Yuanqing Yang)  
레노버 CEO
- 일시 : 1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 00분
- 장소 : 스피어(Sphere)

### 핵심 주제 및 내용

- Lenovo Tech World @ CES 공식 기조연설로 Lenovo의 AI 비전과 아키텍처 제시
  - Smarter AI for All 비전과 단일 클라우드 중심 AI에서 Hybrid AI로의 전환 전략 제안
  - 온디바이스 AI와 퍼블릭클라우드 AI의 동시·선택적 활용 → 퍼스널 AI 슈퍼 에이전트 구현(능동형 AI 비서)
  - AI PC는 제품이 아닌 'AI의 엣지 노드'로 재정의

개인의 가치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기업의 가치

(클라우드 비용 구조 혁신) 모든 연산을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아, 데이터 전송 및 연상 비용 감소

## SIEMENS



- 주제 : 산업용 AI의 현실 세계 적용
- 연사 : 롤랜드 부수 (Roland Busch)  
지멘스 CEO
- 일시 : 1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베네시안(Venetian), Palazzo Ballroom

### 핵심 주제 및 내용

- 현실 세계(real world)의 제조·운영 분야에서 AI가 성능·효율성을 높이는 전략과 사례 제시
  - 제조, 인프라, 운송을 혁신할 AI 기반 기술 스택과 디지털 트윈
  - 산업현장에서 AI·디지털 트윈·자동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혁신하는지 설명할 예정
  - AI·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공장 혁신 사례 제시
  - 산업용 AI는 단독 기업이 아닌 '동맹 구조'가 필요 (Siemens+Microsoft+NVIDIA)
  - NVIDIA와 협력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핵융합로에 적용할 계획
  - 수년 치 실험을 몇 주간의 가상 최적화로 압축 가능

기업 가치

생산 라인 최적화, 다운타임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 맞춤형 생산

##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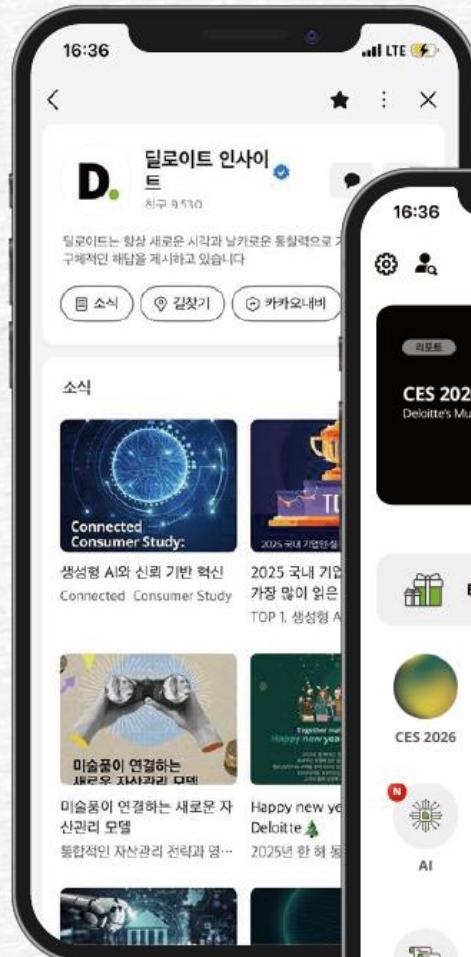
- AI의 무게중심 이동: 모델 → 실행 구조
  - 레노바 : Hybrid AI(온디바이스+클라우드)로 정의
  - 지멘스 : AI는 "분석"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설계 - 제조 - 운영을 연결, 결정하고 실행
- ▶ 퍼스널 AI와 산업 AI로의 역할 분화
- AI의 확산의 조건은 신뢰, 보안, 비용
  - 레노바 : 민감 데이터는 온디바이스, 지식은 선택적 클라우드 → 프라이버시·비용 동시 해결
  - 지멘스 :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산업 AI는 신뢰·안전·책임성이 전제
- ▶ AI 확산은 기술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운영 설계
- AI 생태계 확장 전략
  - 레노버 : OS·디바이스·클라우드 파트너와의 개방형 하이브리드 생태계
  - 지멘스 : NVIDIA, Microsoft, 고객사와의 산업 동맹으로 스케일
- ▶ 단일 기업의 풀스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 채널 &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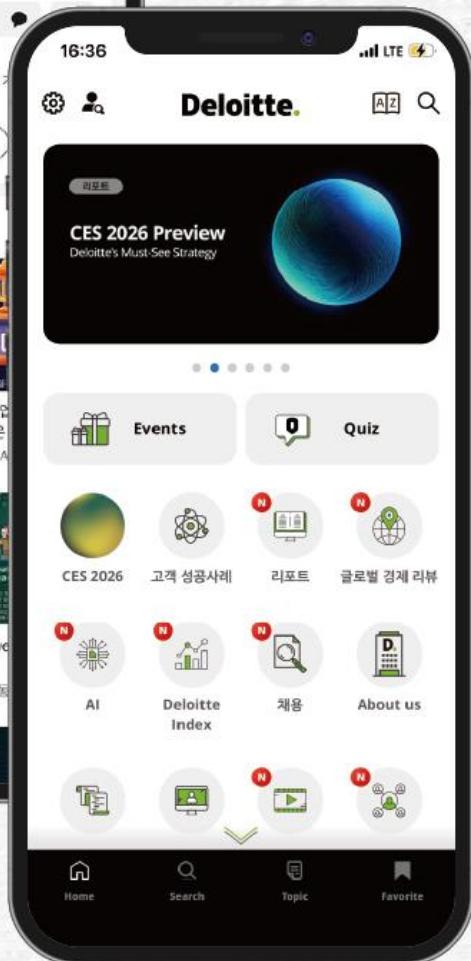
전 세계 경제·산업·경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AI 시대의 전략과 리스크, 산업별 핵심 이슈를 다룬 **분석 리포트**
- 소비심리지수·자동차 구매의향 등 실물경제의 향방을 보여주는 **Deloitte Index**
- 딜로이트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글로벌 행사의 현장을 담은 **영상 콘텐츠**
-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실행 인사이트를 담은 **고객 성공 사례**

카카오 채널



앱



Ch 카카오채널



Deloitte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 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mailto: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mailto: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배순한 Director  
[soobae@deloitte.com](mailto:soobae@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mailto: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 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